



동양시멘트(주)

해외자원개발 사업 본격 진출

동양그룹은 지난 1일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유전개발업체인 골든오일의 합병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사업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지난 2008년 5월 골든오일의 전환사채를 인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제조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동남아 등지에서 유연탄 광구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합병을 통해 유전을 비롯한 유연탄, 희소광물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자원개발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동양시멘트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시멘트사업과 함께 유전개발사업이라는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불안정성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골든오일은 해외 유전개발 전문기업으로 최근 원유 생산에 성공한 콜롬비아 모리치토 광구를 비롯해 현재 캐나다, 페루, 아르헨티나 등 북남미 4개국에 걸쳐 총 28개 광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5개 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운영권 광구는 16개에 이른다. 골든오일은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유망광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합병을 통해 광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력을 확보하게 됐다. 골든오일은 지난해 약 130억원의 원유 매출을 기록했으며,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이뤄지는 오는 2011년에는 약 1,000억원의 원유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양그룹은 골든오일이 북남미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유전개발 전문인력과 기술력, 정보력, 광구운영능력, 현지 정부와의 친화력 등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북남미에서의 유전광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남미의 희소광물자원 개발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석탄에서 가스를 추출, 액화시키는 대체천연가스(SNG:Substitute Natural Gas)사업 등 에너지 및 폐기물 재활용사업에도 진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아나간다는 전략이다.



쌍용양회공업(주)

홍사승 회장, 쌍용머티리얼 대구공장 방문



쌍용양회 홍사승 회장과 김용식 사장은 4월 1일 쌍용머티리얼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쌍용머티리얼 대구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홍사승 회장은 쌍용양회와 관련사의 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해 쌍용머티리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라믹과 페라이트 부문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히와타시 도시유키 부회장, 동해·영월공장 방문

쌍용양회 히와타시 도시유키 부회장은 부임 후 처음으로 4월 20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동해와

영월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생산공장의 설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SSPM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히와타시 부회장은 생산공장의 혁신활동과 분임조 활동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설비의 보수점검 주기를 조절해 남은 역량을 혁신활동과 같은 핵심역량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히와타시 도시유키 부회장은 방문 기간 동안 직접 광산을 비롯해 생산현장을 일일이 찾아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VP 활동, 관련사까지 확대 실시

쌍용양회가 도입한 VP 활동이 5월부터 관련사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쌍용양회 혁신추진팀은 4월 7일 본사 5층 교육장에서 관련사 기획 또는 혁신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VP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혁신추진팀은 시행방법과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부서를 견학케 했다. 4월 12일부터는 전국의 관련사를 찾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했다. 쌍용양회 관련사는 각 사별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주관부서로 운영하며, 5월 3일 VP 활동을 키오프하고 일일 VP 미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쌍용양회 혁신추진팀은 각 사별로 VP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순환자원 운송업체 대상 환경안전교육 실시

쌍용양회 환경자원사업팀은 생산공장에 순환자원을 공급하는 67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4월 7일과 8일에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순환자원 공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검토와 개선책 마련, 그리고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교육을 마치고 환경안전 서약을 하고 환경보전의 의

지를 다졌다.

카메룬 퍼스트뱅크 회장 일행 방문

쌍용양회는 5월 25일 폴 포캄 카메룬 퍼스트뱅크 회장 일행의 방문을 받았다. 폴 포캄 회장은 평소 광산개발과 시멘트 생산공장 건립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문은 카메룬 주재 한국대사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폴 포캄 회장 일행은 3층 대회의실에서 쌍용양회 홍보영화를 시청하고 광산개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영월공장, 서곡정사-왜가리 서식지 환경정화활동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5월 7일 1사1문화제 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곡정사와 공장내 왜가리 서식지 등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지난 4월 영월공장이 2009년도 강원도 1사1문화제 지킴이 활동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석가탄신일을 앞둔 시점에서 사찰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삼화동 한마음 경로잔치에서 자원봉사활동 벌여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5월 7일 삼화동 새마을협의



회가 주관하는 한마음 경로잔치에 종합기술훈련원 대강당을 경로잔치 장소로 제공했다. 당초 한마음 경로잔치는 삼화동 주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곳은 날씨로 급하게 종합기술훈련원 대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삼화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600여 노인들이 참석했으며, 동해공장 종업원 40여명도 함께해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헌혈 캠페인 행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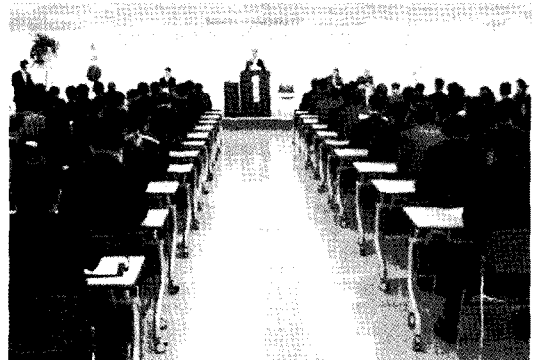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5월 14일 동해상공회의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에 참여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창립기념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30여명이 참여했다.



현대시멘트(주)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26일 본사 대강당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제40기(2009.1.1~2009.12.31) 재무제표 승인과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액 승



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결의되었다.

폭설 피해 인삼밭 복구 지원봉사



갑작스런 폭설로 공장인근 신천리 주민 인삼밭 복구 지원에 영월공장 임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지난 3월 30일 주민 김영민씨 농가를 찾아 붕괴된 인삼 해가림막 지주대를 해체하여 재고정하는 작업을 도왔다. 이날 봉사활동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임직원들은 말했다.

본사 임직원 검단산 춘계 산행

본사 임직원들이 지난 4월 10일 검단산 춘계 산



행을 실시했다.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견단산 현충탑에 집결하여 등반 후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며 임직원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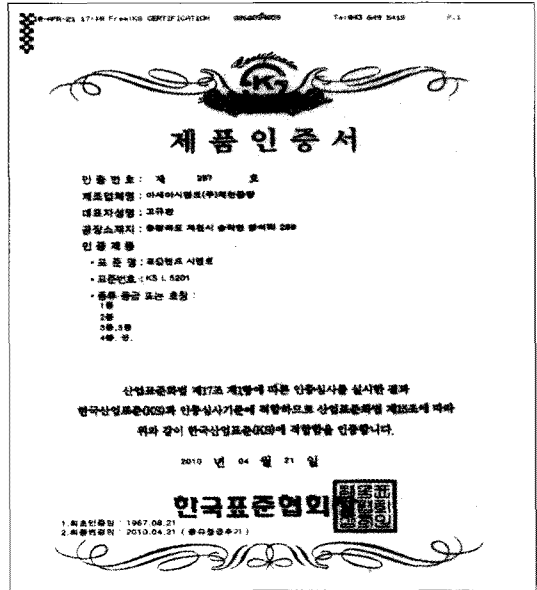
아세아시멘트(주)

제15대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아세아시멘트는 3월 12일 제천공장에서 임직원과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9년간 활동한 최준수 제14대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했고 이종각 제15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사협력과 상생을 통해 아세아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천공장,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KS인증



지난 4월 21일 제천공장에서 생산한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을 획득했다.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열이 낮고 고내구성 고강도 제품으로 대형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의 매스 콘크리트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아세아시멘트는 이번 KS인증 획득으로 품질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세아시멘트 임직원, 암사재활원 정기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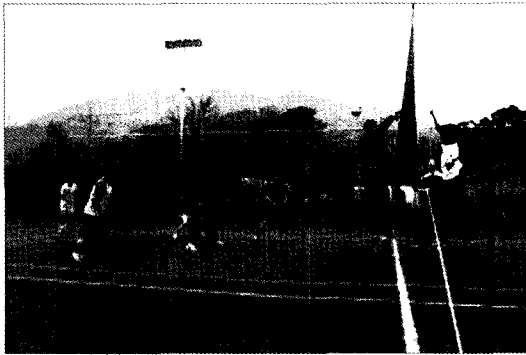
아세아시멘트 임직원 봉사자들은 3월 27일, 4월 24일, 5월 5일에 서울 암사동에 있는 암사재활원을 방문하였다. 암사재활원은 중증 장애아동 보호시설로 12개월부터 고등학생까지 남녀 52명이 생활하고 있다.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하는 방에는 8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해님방으로 봉사자들은 청소, 식사보조, 놀이 등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였다. 아세아시멘트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월

업계 동정



1회 정기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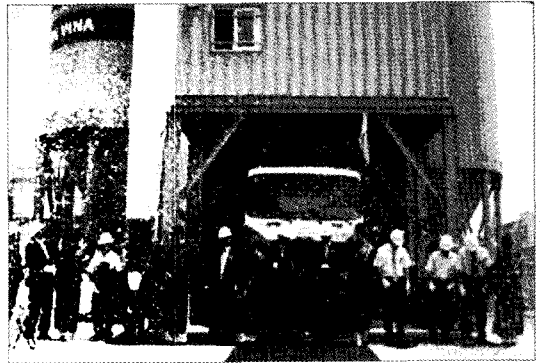


5월 4일 제천공장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들은 공장내 풋살 경기장에서 배구경기 등을 하고 다과를 먹으며 근로자의날을 기념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직원들은 이자리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기원했다.

SUNGSHIN 성신양회(주)

베트남 레미콘 공장 준공

성신양회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 라이엔 공업단지 에 '성신비나 레미콘 공장'을 준공하였다. 성신비나 레미콘 공장은 8,656m²(약 2,618평) 부지에 건립되었으며, 연간 42만m³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인근 지역에 레미콘 공급을 하게 된다.



LAFARGE HALLA CEMENT 라파즈한라시멘트(주)

강릉소방서와 안전교육 협약 체결

라파즈한라시멘트는 지난 3월 26일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옥계공장에 소재한 안전실습 교육센터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약을 강릉소방서와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안전실습교육센터' 공동 사용 및 발전에 필요한 업무지원과 각종 재



업계 동정

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체결된 것이다. 센터에는 컨베이어 안전, 에너지 차단, 개인안전보호구, 밀폐공간 안전, 응급조치 등 직접 체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안전실습교육센터는 2009년 6월 개설 이후 시멘트 업종 안전보건협의회와 동종업계 관계자는 물론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삼호 유통기지 사이로 이전완료에 따른 개소식 열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지난 4월 8일 새로 이전한 삼호 유통기지에서 정지로 부사장을 비롯한 고객, 현대 삼호중공업, 한라건설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1994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기존의 유통기지는 현대 삼호중공업 부지내에 위치하여 고객의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기지를 이전하였다.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라파즈의 철저한 안전규칙을 준수하면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신규 유통기지는 기존 유통기지에서 약 5km 떨어진 목포시 달동에 소재하고 있다. (주소: 전남 목포시 달동 1344번지, 대표전화번호: 061-461-1415, FAX: 061-461-1692)



옥계중학교 안전지킴이, 옥계지역 의용소방대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시멘트 사업장에서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체험하고 실습을 통해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안전실습센터가 지역사회 안전교육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안전 최우선 정책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안전에 대한 경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4월 17일에는 옥계중학생 37명이, 5월 29일에는 33명이 소방, 가정, 응급처치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옥계중학교 안전지킴단 학생들이다. 4월 27일에는 옥계의용소방대 40명이 안전교육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교육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항만공장 항만하역업 부분 무재해 7배 목표 달성

라파즈한라시멘트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장 항만하역업 무재해 운동 7배수 목표를 2010년 1월 13일부로 달성하였다. 목표달성에 따른 인증서 수여식이 지난 4월 21일 옥계 항만공장에서 열렸다. 이번 항만하역업 무재해는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된 7배수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예인선 한라12호 기관장인 박성삼 사우는 유공자로 선정되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